[illegible]하고 活潑하다 그들의 活動은 과연 놀나웠다 그리하야 그들은 벌서 보터 家庭的으로 社會的으로 女優들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一般으로 美說의 所有者인데 感歎하였다

그리고 이 溫泉에 있는 동안에는 外叔內外분과 外從姪姪들의 情다운 물만 하였다 집에서 길으는 닭을 가져온다 結實이 完全한 옥수수를 끓나서 먹다준다 서울사람들의 社交的으로 對하는 것과는 雲泥의 差가 있는 것을 늣기였다 밧부게 여나노라고 여날에 못본 것이 우리도 섭수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남편이 여기에서 多小效果는 있는 모양이였다 이 溫泉에는 여러가지 成分이 섞거 있는데 胃病 婦人病 痔 身不隨 昇마지스 神經痛 皮膚病等에 特別한 효험이 있다한다 의사가 못 못치는 病院에서 내여보내는 病者 屍身 것치 여며 여온 病者 外지나 어가는 일여 세수로 있다한다 이 溫泉에 十餘年이나 開業하고 있는 의사의 말을 드르면 이 溫泉들은 病院약에 比할수업는 名藥이라한다 다른사람들도 果然名水 아 名水아하고 感歎을 한다 나는 이 溫泉물이 관세암보살님의 化身인줄 믿었다 나혼자 만은 관세암보살님의 慈悲의 마음을 깨닫는 것만은 모든 다른사람은 그저 無心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 뿐이다

각 地方사람이 다 모히고 각 階級사람이 다 모히고 더구나 病한 病者들이 만히 모히는 이 곳에 佛敎堂 하나를 위 못로 道學이 높고 信心이 굿은 熱誠 있는 佛敎師가 계서서 佛敎를 전 오면 불상한 衆生을 얼마나 만히 건질가 하는 생각이 드럿다

溫泉浴을 갓치하는 婦女들中에 佛法을 아르켜 줄만한 사람이 업나? 하고 살피다가 생각하다가 몃사람에게 몃마디 傳하였지만은 조고마한 信心 하나만 가진 無知한 나의 말이 얼마나 效果가 있었을는지

나는 溫泉의 效果로 다행이 子女가 생긴다면 完全한 佛敎師가 되여 이 溫泉이나 故鄕에 돈 커 佛法을 傳하는 이가 되여지이다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빌었다

「끗」

(四十五頁에서 繼續)

지안습닛가 고맙습니다 先生님의 기쳐주신 恩惠는 언제나 언제나 佛敎의 生命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先生님의 가신길이 다시 오시지 못할줄 알면서도 아쉬운마음에 한번 또다시 불너 보았읍니다 先生님 世上을 비웃음이 도리여 慈悲이요 人生을 嘲笑하심이 無常을 깔으치신줄 알때 돌이여 先生님의 安住를 빌뿐입니다 先生님! 커언덕 彼岸가엇더하십닛가 길이길이 極樂殿에 安住하옵소서

二九五八、 舊六月日

조선 어불교 성전 제이편 [四]

一、이러롯 부처님께서는 사위성의 기원정사(祇園精舍)에 잠간 계시다가 왕사성으로 돌아가시사 죽림정사(竹林精舍)에서 셋째 우기(雨期)를 지내시더니 그때 경영이인(經營長者)의 욱가사나(郁伽羅)는 안해와 그 단체(團體)를 거느리고 왕사성에 와서 있다 그는 원래 그곳에 있는 부상(富商)의 아들이더니 돌아다니는 애인(愛人)의 단체가 왕사성의 남금앞에서 연극을 할때 그 중의 한처녀(處女)를 사랑하야 집을 버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로 든 사람으로 새조를 배울때에는 그 안해와 들무들의 조소(嘲笑)와 모욕(侮辱)속에서 눈물의 날을 보내이었다 그러나 얼경 재조가 늘어 한에처(處女)를 거느리고 나그내의 길을 떠났섯다 처로는 왕사성에서 수십리 이나되는 높은 고지 때우에 올리 스사로 재조를 보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상(非常)한 열심으로 모히어 섰다 보리님께서는 그때 맞이 비구를 거느리시고 그곳에 오시더니 목련(目連)의게 닝형하사 시롱으로써 그의 같은 놈은 곳에 올리 욱가사나의게 법을 설하도록 하셧다 기연(因緣)이 익엇든지 그는 그법을 배우고 우깃버하야 고지 때에서 나려와 부처님 앞에 엎되리어 숭기하야 그 족제(眞足)를 받자하여 주시기를 빌었다 부처님은 그를 친락하시매 그에게 (慈者)의 한사람이 되었다

二、 데리고 도 왕사성의 인(慈人)의 한사람이 되었다 오백명의 처녀(處女)로 된 한 패 재조들거느리고 시자(市)와 마을(村)의 세사 지 있음에 연국을 하기도 하며 혹은 왕궁(王宮)에 초대되어 그 재조를 보이기도 하며 다니 욱가사나가 도에 들어온 뒤 언마이 되어 그도 심기 心氣가 부처님을 숙림정사(竹林精舍)로 차자뵈옵고 「부처님이시여 저는 선배(先輩)의게 들은 숙 배우([illegible])는 무대([illegible])에 서 [illegible] 하여 손님의게 보이는 재밥에 목숨이 다하면 외소천(嘆笑天)에 난다고 하더이다 부처님께서는 [illegible] 하십니까」 「데리 곧 데리 이것을 너의게 물어서는 아니된다」 하시매 나라 분다는 두 번이나 [illegible] 묻자오나 부처님은 거절하시다가 세번째 물음에 대답하시되 「데리 곧 데리 [illegible] 신실을 어지러웁게 하야 사람의 [illegible] 입어 바리게 하는 때우는 욱가사 [illegible]

잘못된것이니 참못된소견을가진사람은 죽어서지옥에떠러지거나 축생(畜生)이되는수밖에없나니라」 이 말씀을들은 다라꼴가는 훈적훈적울엇다 「다라꼴다야 그럼으로나는 그들못지말라고 아니차드냐」 처님이시여 내가우는것은 부처님께서 무서운미래를 말씀하신까닭이아니라 나의선배가죽으신 뒤에난다고 나들죽이엇기때문임니다」 그로붙어그는열심으로 부처님의가르치심을듯고 밤낮을 쉬지 머니 차차업을닥고 깨사람이되엇나 그가수행중(修行中)의고란(苦難)과 자리의마음을 이겨내 제이 하엿든것을 다음과같이노래하엿다

(一)언제나나는 깊은산굴속에 홀로살면서 세지의온갖것을 멋없는숨보오리

언제나나는 누덕이누덕옷으로 내것이란생각없고 욕심이며진심이며 어리석음최다버고 소리 이있자

언제나나는 축음, 삶음, 빈을익여 두렵없이숲에살자

언제나나는 애욕(愛慾)의번울끊고 지혜의드는칼로 미혹들을부시리

신에낫소라 주림과목말음에 쪼들림없고 색(色)미혹(色迷惑)의 타오르는불꽃에 뉘어두운러없으니

헐은(壞)몸내마음이 상할줄이있스랴 정진한들내마음에 걸거움줄있으랴 성교(聖敎)에들어서 미안

항상연년하니 언제나조흔날이 오고야말으리라

(二)마음아내마음아 「집에살때 무엇이라」 떠나람이맷해왼대 집떠나서사문되고 어이정근(精勤)

아닌하랴

마음아 「아름다운새소리 몰아치는우뢰소리 숲에나들워보라려」 나들몇번유인한가

지금에이내몸은 집이나벗이나 세상낙을버리고 숲에서살건미는 너는어이질기잔나

온갖것이번함다고 번함이없는길을 구하지않엇든가 부처님은이마음을 원숭이같다시니 욕심을아니

면 제어하기어렵도다

아름다운그림자에 이마음이미혹하야 삶(生)을읍시구하노라 고(苦)의길을걸어서 마음을끌어다가 지옥에드려옵세

(三)「공작(孔雀)황새(白鷺)우는숲에 호표(虎豹)의게물리싸혀 욕심을맹이라고 대들일치말어라고」 마음아니는나를 재촉하지안느냐

「깸으로가는길을 고의뿌려깐호며 분별계교(分別計較)쉬우고 성교(聖敎)를조차서 예거려로유행(遊行)하며 숲에서머무라고 마음아너는나를 장려하지안느냐

행상도없으면서 멀리가는마음아 나는 너를좃잔노라 욕심에는무서운 고와공포(恐怖)있으니 제는 길을바라고 오로지나아가라 마음아어데서하도 나는네말안드르려 여러는이마음이 줄곳줄곳숨속이여 마음하고싶은대로 걸음을걸엇것만 나는오늘붓어서 이마음을억제하라

(四)곤너가기어려운 미혹바다건네자 마음아너는지금 예전같이아니되고 너의지배하는밑에 들아

감을싫어하야 나는이제성인의 가르침을좇으려라

아(我)와예(如)는멸(滅)없건만 산과내와큰바다와 사방상하(四方上下)무엇이나 모도다멋없으며 모

조리재(災)가있다 마음아어데서 너는낙을구하려나

사심의때문작의때 너름비를마짐도 서늘하게보이누나 그러산골속에서 나무도막상사하게 굴속에잠

을자도 소음방석같도다 스님의하심같이 얻은것에만족하야 삿된길을따라하고 성인을뫼시옴고 고

은숲에노닐때 질거운산내음아 마음아제언때으로 제어세가잡시라

제이절 오계동자 (五戒童子)

一、부처님께서는 이러목 숙명정사(竹林精舍)를 근거로하시고 왕사성(王舍城)을교화하시되 욕은동으로 흑은서로 그장소들음기시엇다 어느때 왕사성동쪽에있는 암비산림(菴婆羅陀)라고하는 비하문

론의 복락 때제아산(吠提耶山) 인다라사라굴(因陀羅沙羅窟)에계실제 제석천(帝釋天)은 부처님을뵈옵고저 여러하늘들거느리고 그산에나려왔다 건달비(乾闥婆)의아들 반자지카(般遮迦)도 관유를받아 번류바(遍流婆)라는악목(黃木)으로만든 류리금(琉璃琴)을가지고 제석천을뵈시고왓섯다

때에이산은전부 여러하늘의 광명에싸혀엇슴으로 사방의마을사람들은 무서운불이나 나지아니하엿나하고 몹씨리치도록놀래엇다

제석천은 선정(禪定)에옴신 부처님을뵈옵고 오계동자의게명령하되「동자야 부처님은지금 선정의낙을받고계신다 정에드신부처님의게는 우러같은사람이갓가이가기어렵다 위신에음악(音樂)으로써부처님이질거우시게하여라 나는그뒤에가겟다」「네—그러하오리다」하고 오계동자는류리금을손에들고 부처님게시는 굴에갓가이가서 거문고를울리면서 노래를하니 그는 부처님과 범과 성자(聖者)와 사람에관한노래이엇섯다

(1)아릿다운아가씨여 해외왕명이여 너의아버지 인비류(仁婆流)의게 영광이있거라 세상의광명인 너의아버지 참말나의게 깃버하는어머니

땀흘리는사람의게 맑은바람시원하듯 목말은사람의에 맑은물이질거움듯 랫님의자손인 아가씨이시여 너는나의사랑이다 그는권력없이 법이성자(聖者)사랑인듯

병든사람의게는 약(藥)의간식(安息)주듯이 주린사람의게는 음식의락을주듯이 나의마음을 맑은물로저주신다 번뇌은화분(花粉)을쓰고 차불이넘치는못에 열(熱)에타는론코키리 몸을당거주듯이 나도그대아름다운 가슴에잠기오리

(2)열에달고매를만는 크다란코키리가 목책(木柵)이나말뚝도 못보고날뛰듯이 거룩한그자리(法能)를 이슬수나는없어 내하는일잘잘못을 나는아지못하네

내마음에게붙어 떠러질줄모르누나 내마음이이대도록 변하엿단말이런가 그러나이세나는 돌릴수가

없어라 낙시먹은고기처럼

아가씨야곱다란 그가슴에품어다오 눈물겨운눈으로 조곰만보와다오 이세상에내의원은 이것일뿐일세라

(3)처음이다처음이다 내사랑은젊엇서라 물결같이고은머리 아름다운아가씨여 이제붙어그지없이 점점넓어가누나 부처님께공양올린 크다란공덕처럼 부처님께이바지한 네공덕의온갓것은 네가모다 받어다오

넓고큰이세상에 나의착한공덕이란 네가모다받어다오

서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 정에들시사 거룩하고진실하고 발으신마음으로 깨다름을구하시듯 태양(太陽)의광명이여 나는니불구하노라

우없는깨을얻은 모니(牟尼)의깃브시듯 요행으로나도너와 하나가되고보면 그깃븜이어떠하리

(4)도리천(忉利天界)님금인 제석천왕(帝釋)님께서 나의게한가지 은사(恩賜)를주신다면 내가 곧라잡을것은 오직하나너뿐이리 나의사랑은 이러듯굿셈니다

제일어진아가씨여 나는너의아버지를 숭배(崇拜)하고싶으다 곱게곱게꼿피는 사라림(娑羅林)같이도 너를나은아버지니

二、부처님께서는 류리금(琉璃琴) 소리와 이노래를들으시고「오계동자야 너의거문고소리와 노래는잘어울리는고나 너는그것을 어데서배웟느냐」하시매 오계동자는 대답하야살우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아륙도들께시기전 니련선하(尼連禪河)가에서 니구로리(尼拘盧陀)나무밑에계실때에 나는건달파(乾闥婆)의님금 인비류(仁婆流)의아가씨 『해외빗』이라고이르는 발리(跋陀)를사랑하엿나이다 그리나 그아가씨는 이미 마다리어자(摩多利御者)의아들 지키제(芝佉提)라는사람의 색이되여있엇나이다 나는아모리생각하여도 나의사랑하는사람을 맛날때가없음으로 류리금(琉

瓔珞)을 가지고 『인바류왕(仁婆流王)의 집앞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이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즉 『해의벗』 밝히는 집에서나와 나의게이렇게 말을하더이다』 『나는아직 부처님을 친히 뵈온적이 없나이다 거번 도리천(忉利天)의 정법전(正法殿)에서 열리인무도회(舞蹈會)에서 부처님의말씀을 비로소드렷더니 오늘당신께서 부처님의일을 찬미(讚美)하심으로 나는당신을뵈옵고저하는 생각이낫소이다』 하고 말을 하더이다 부처님이시여 그뒤에나는 그네들만나게되엇나이다』

세석천(帝釋天)은이릿게 부처님을 선정에서깨워가지고 뵈웟습니다

제삼절 베사리의 기근 (吠舍離의饑饉)

一、부처님께서 이러롯축림정사에게시다 사방으로교화(敎化)를행하실때 이웃나라인베사리에서는 기근(饑饉)역병(疫病)에 죽는사람이많으매 사람들은공포에싸이어 어찌할줄을아지못하는 상태이엇다 나라사정사를맡은귀족(貴族)들은 당시일흠높은육사중(六師中)에 한사람을청하야 악한귀신을물리치려고하엿스나 뱅녈이주장하는 사람이있음으로 부처님과빈비사라왕(頻婆娑羅王)의게 사자(使者)를보내여 비참한상태를하소연하고 유화(遊化)하시기를청함으로 부처님은그를허락하시니 빈비사라왕께서도 항하(恒河)의언덕까지 길을곤치닥고 부처님을보내어드렷다 부처님께서는 항하를건너 세유순(三由旬)쯤가시사 베사리땅을밟으시매 악한귀신은 그세력을휠고 역병들은문득써러지기시작하엿다 아란(阿蘭)은 부처님의명령을받자와 보배경(經)을외이면서 성위로다니면서 물을뿌리니 악귀(惡鬼)들는 드되어 도망하여버리고 역병은아조지식되엇다 부처님께서는 두달동안이나 베사리에게서사 법을펼하시고 다시축림정사로 돌아가셧다

제사절 사리불의설법 (舍利弗의說法)

◎ 投稿大歡迎

政治의時事를除외고는 切의原稿를 모다歡迎합니다 不敏하오나嚴選하여 入選된原稿는 次第로 掲載하겠습니다 (原稿는一切返還치아니합니다) 그리고 佛敎思想發揚、佛敎的見地、佛敎에서 [illegible] 例하면 萬一에 他宗敎를信仰하다가 如何한 [illegible] 로 佛敎에歸依했다는것, 佛敎에 [illegible] 或發[illegible] 등 [illegible]

◎ 支分社募集

本社에서주최하는 [illegible]

[illegible] 支社又는分社를 [illegible]

[illegible] 定價 [illegible] 郵稅 [illegible]

本誌代

一個月 [illegible]
六個月先金 [illegible]
一個年先金 [illegible]
(郵稅每千部 [illegible])

[illegible] 佛敎 [illegible]

發行所 佛敎社

[illegible] 一〇二三番
[illegible] 八二番